

ReBoot



2023. 4. 26 - 5. 14



Reboot

2023. 4. 26 (수) - 5. 14 (일)

공간독립(대구시 중구 공평로 8길 14-7)

관람시간 : 오후 1시 - 오후 7시 (월, 화 휴무)

관람료 : 무료

주최 : 공간독립

문의 : 0507-1404-1463, spacedokrip@gmail.com

@spacedokrip (instagram, facebook)

Reboot : 몬스터의 새로운 탄생

컴퓨터의 재시동을 뜻하는 단어 ‘리부트’(reboot)는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창작 분야에서도 흔히 쓰인다. 시리즈 작품이 한계에 부딪힐 때 고수하던 연속성을 끊고 세계관이나 설정을 유지한 채 새로 만드는 것을 리부트라 한다. 이재호의 개인전 『reboot』는 그가 수년간 구축해 온 몬스터의 리부트를 보여주는 전시로 여러 시도를 선보인다.

boothing

이재호의 몬스터 연작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통념적인 것에서 벗어난 존재나 사회에서 다르다고 인식되어 경리되고 외면받는 사람들을 대변해 몬스터로 창조했다. 그의 몬스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떠올리는 기괴함, 위협, 공포와는 거리가 멀다. 장지에 흑백으로 한 올 한 올 그려진 털과 관람객을 응시하는 온순한 눈동자는 기묘하면서 친근감을 느끼게하는데, 그 근간엔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두려움, 외로움, 소외에 대한 동질감이 내재되어 있다.

작가는 몬스터의 추상적 세계를 꾸준히 확장했다. 하지만 확장이 임계점에 도달하자 넓어진 몬스터의 세계와 양식화된 창작 방식은 작가에게 매너리즘을 유발했고, 몬스터 주체의 모호함은 소재의 한계를 동반했다. 작가는 이에 대한 돌파구로 과거 몬스터를 유지한 채 추상적 세계를 구체화하는 여러 시도하게 된다.

rebooothing

이재호의 몬스터는 보통명사로 존재했다. 소외된 이들, 결핍의 존재와 같이 구체화하지 않은 주체들의 집합체이다. 작가는 추상적인 몬스터를 명료하게 만들기 위해 그리스 신화를 빌려와 개별의 몬스터를 고유명사로 만들었다. 이번 전시에선 디오니소스를 중심으로 구성한 세계를 제시한다. 신화 속 신의 개념을 몬스터화 시키면서 디오니소스의 솔방을 지팡이는 꼬리로 변했고, 타고 다니는 표범은 몬스터와 결합했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뿐만 아니라 디오니소스의 탄생 서사 속 제우스(Zeus)와 세멜레(Semele)의 모습도 몬스터로 변형되었다.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성격을 대변하는 ‘광기’는 펜테우스(Pentheus)와 리쿠르고스(Lycurgus)의 서사로 풀어냈는데, 작가는 이를 ‘광기의 봉’이라 명명한다. 정면에 벽화로 그려진 넝쿨 위엔 디오니소스를 비아냥거리다 형벌을 받는 리쿠르고스를 배치했고, 맞은편엔 디오니소스를 부정한 대가로 고통을 받고 있는 펜테우스가 있다. 신화 속 서사를 회화로 변환하는 방식은 이전의 몬스터의 서사와 확연히 다르다. 명확하게 묘사되어 있는 신들의 특징을 통해 몬스터의 외형을 구체화하고, 그리스 신화의 방대함은 리부트 한 몬스터세계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다.

재료의 변화도 있다. 동양의 전통재료인 한지에서 캔버스로, 흑백의 아크릴에서 다양한 색채의 유화로 바뀌었다. 안료의 변화로 봇 또한 바뀌게 되고 기법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가는 선을 그리던 세필에서 면으로 그리는 유화 봇은 질감이 강조되고 한지에선 표현할 수 없었던 물감의 두께감이 생겨났다. 물성의 변화는 화면 표면의 상태뿐만 아니라 회화가 풍기는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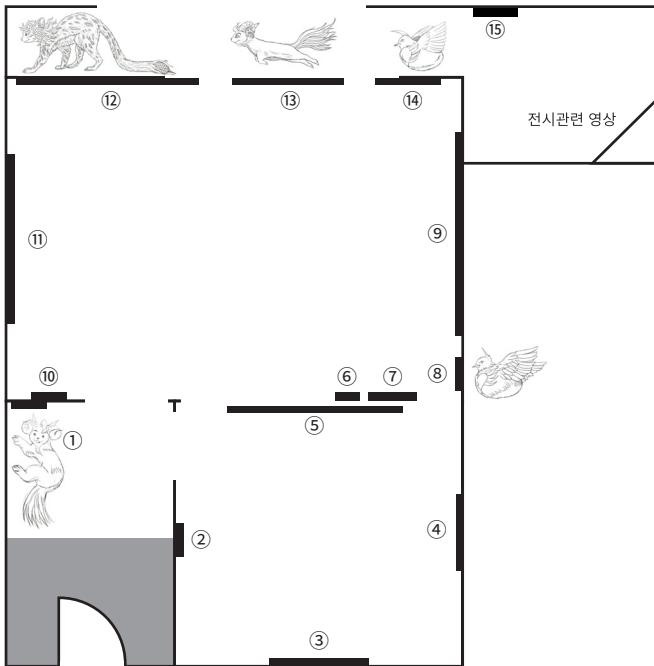
이전 몬스터 연작은 몬스터를 둘러싼 흑백의 숲, 나무 등의 자연물이 동양의 미지 세계를 연상하게 했다면, 리부팅 된 세계는 그리스 신화와 더불어 재료와 색의 변화로 서양의 전설 속 풍경의 분위기 자아낸다.

에스키스를 완성시킨 후 다시 큰 화면에 옮겨 그려내는 이전의 작업 방식은 높은 완성도를 보장하지만 우연이나 즉흥적인 봇질의 행위를 제한하고, 작가의 상상만으로 무(無)에서 만들어낸 몬스터는 자율성을 보장받지만 매번 새로움을 찾아야 한다는 고통을 동반했다. 작가는 이런 과정 속 느끼는 매너리즘을 타파하고 궁극적으론 창작의 지속을 위해 리부트를 시도한다. 이번 전시는 창작의 결과이기보다 새로운 몬스터 세계의 시작이며 과정이다. 『reboot』를 시작으로 이재호의 몬스터는 연쇄적인 그리스 신화처럼 새로운 차원이 쌓여 증폭될 것이다.

글_김민지

Satyros, oil on shape canvas, 40 x 88c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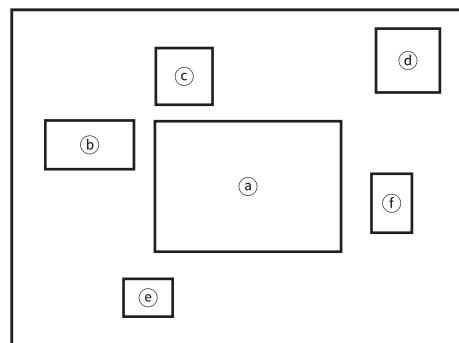
이재호

- ① Satyros, oil on shape canvas, 40 x 88cm, 2023
- <광기의 방>
- ② Dionysos, oil on canvas, 45.5 x 37.9cm, 2023
- ③ Mad Lycurgus, oil on canvas, 72.7 x 90.9cm, 2023
- ④ Death of Pentheus, oil on canvas, 90.9 x 60.6cm, 2023
- ⑤ Madness of Dionysus, oil on canvas, 130.3 x 97cm, 2023

caption

- ⑥ Nymph, oil on canvas, 22.7 x 15.8cm, 2023
- ⑦ Satyros, oil on canvas, 60.6 x 45.5cm, 2023
- ⑧ Nymph, oil on shape canvas, 52 x 38cm, 2023

⑨



- ⑩ Zeus and semele, oil on canvas, 90.9 x 72.7cm, 2023
- ⑪ Dionysos, oil on canvas, 40.9 x 24.2cm, 2023
- ⑫ Satyros, oil on canvas, 45.5 x 45.5cm, 2023
- ⑬ Habitat, oil on canvas, 45.5 x 45.5cm, 2023
- ⑭ Dionysos, oil on canvas, 27.3 x 22cm, 2023
- ⑮ Dionysos, oil on canvas, 24.2 x 34.8cm, 2023

- ⑯ Dionysos, oil on canvas, 33.4 x 33.4cm, 2023
- ⑰ Dionysos, oil on canvas, 97 x 130.3cm, 2023
- ⑱ Dionysos, oil on shape canvas, 205 x 80cm, 2023
- ⑲ Satyros, oil on shape canvas, 113 x 52cm, 2023
- ⑳ Nymph, oil on shape canvas, 54 x 45cm, 2023
- ㉑ Dionysos, oil on canvas, 45.5 x 45.5cm, 2023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monster를 그리고 있었다. 정확하게 왜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술가로 살아가야 하는 내모습에서 관심을 받기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던 어린 시절의 내모습을 보았다. 마치 기이하거나 남들과 다르고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에 monster라는 명칭을 붙이듯이,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다고 짓누르는 나 자신이지만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통해 monster처럼 어떤 명칭이라도 듣고 싶었던것을 아닐까?

나자신의 모습, 상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을 monster를 통해 풀어내고 있다.

Mad Lycurgus, oil on canvas, 72.7 x 90.9cm, 2023





Death of Pentheus, oil on canvas, 90.9 x 60.6cm, 2023



Madness of Dionysus, oil on canvas, 130.3 x 97cm, 2023

(오른쪽 작은 그림)

Dionysos, oil on canvas, 45.5 x 37.9cm, 2023







(좌) Satyro, oil on canvas, 60.6 x 45.5cm, 2023
(우) Nymph, oil on canvas, 22.7 x 15.8cm, 2023



(중앙)

(12시 방향)

(2시 방향)

(4시 방향)

(7시 방향)

(10시 방향)

Zeus and semele, oil on canvas, 90.9 x 72.7cm, 2023

Satyro, oil on canvas, 45.5 x 45.5cm, 2023

Habitat, oil on canvas, 45.5 x 45.5cm, 2023

Dionysos, oil on canvas, 24.2 x 34.8cm, 2023

Dionysos, oil on canvas, 27.3 x 22cm, 2023

Dionysos, oil on canvas, 40.9 x 24.2cm, 2023



Dionysos, oil on canvas, 33.4 x 33.4cm, 2023

Dionysos, oil on canvas, 97 x 130.3cm, 2023





Dionysos, oil on shape canvas, 205 x 80cm, 2023



(좌) Satyros, oil on shape canvas, 113 x 52cm, 2023
(우) Nymph, oil on shape canvas, 54 x 45cm, 2023

Dionysos, oil on canvas, 45.5 x 45.5cm, 2023





계명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졸업

개인전

2023 <Reboot> 공간 독립, 대구

2018 <헬로, 프렌즈> 구미문화예술회관_구미

2016 <hoi hoi> gallery H_대구

2015 <율해의 청년작가 초대전> 대구문화예술회관_대구

2014 <서식지> 스페이스 가창_대구

2013 <유리상자 아트스타 선정작가전 : 모여라 꿈동산> 봉산문화회관_대구

주요 단체전

2022 <B more than A> 어울아트센터_대구

2021 <夢스터 Dream+monster> 천안시립미술관_천안

2020 <꿈의 색, 꿈의 빛> 어울아트센터_대구

<실재와 가상-그 경계에서> 수창청춘맨션_대구

2019 <에코, 아이코> 경주예술의전당 알천미술관_경주

<일렁이는 모든 것의 통로>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_서울

2018 <주목과 시선> 대구신세계갤러리_대구

<The Middle of Nowhere> 스페이스 가창_대구

2017 <대구예술발전소 7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대구 예술발전소_대구

<친구의 발견> 헬로우뮤지움_서울

<들여다보기 + 그래피티> 범어아트스트리트_대구

<낭만창전 : 浪漫窓前> 경북대학교미술관_대구

2016 <육출기계 : 여섯 가지의 기이한 꾀> 스페이스 가창_대구

<동화나라 Wonderland> 포항시립미술관_포항

<도시철도 프로젝트 : 아트열차>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_대구

2015 <친구 : 관계의 재발견> 헬로우뮤지움_서울

<Critical Point> 스페이스 K_대구

2014 <가창창작스튜디오 국제레지던시 프로그램 결과전 : 황금통로>_대구

<Young & Young Artist project : I, My, Me, Mine> 영은미술관_경기도

<Over-Drapes : 12개의 커튼> 범어아트스트리트_대구

<보이는것과 보이지 않는것 : 숨바꼭질> 헬로우뮤지움_서울

2013 <애니마믹 비엔날레 2013-2014 : 내 안의 드라마> 대구시립미술관_대구

<청년미술프로젝트 : from I to I> EXCO_대구

<도시철도 프로젝트 : 아트열차>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_대구

<ASYAAF> 문화역서울 284_서울

<순진한 그림> 범어아트스트리트_대구

<“나에게 너를 보낸다” : fantasy-will be there> 대구 예술발전소_대구

2012 <becoming an artist 1, 2> 봉산문화회관_대구

2009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스페이스 가창_대구

레지던시

2017 대구예술발전소 입주작가_대구

2016 해외레지던시파견_항저우, 중국

2014 가창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_대구

수상

2019 글로벌 반스 커스텀 컬쳐 콘테스트 우승 (Vans)

2015 율해의 청년작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작품소장

대구시립미술관_대구문화예술회관_헬로우뮤지움 어린이 미술관

Contact

E-mail : sjhcg@naver.com

Homepage : www.jaehoya.com

Instagram : www.instagram.com/jjjaehhho/

ReBoot

발행일: 2023년 4월 26일

기획: 공간독립

협력: 147콜렉티브

디자인: 신명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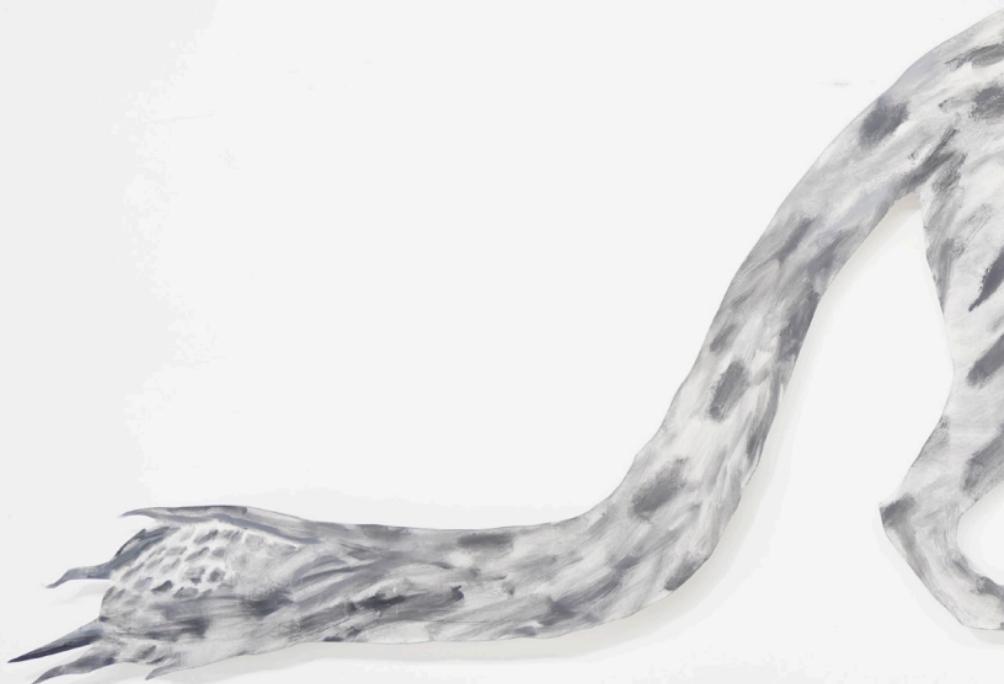
교열: 이재호 김민지

인쇄: 케이비팩토리

발행부수: 150부

© 본 책의 콘텐츠 저작권은 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공간독립 및 참여 작가들에게 있으며 어떠한 내용도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이재호



Lee Jaeho